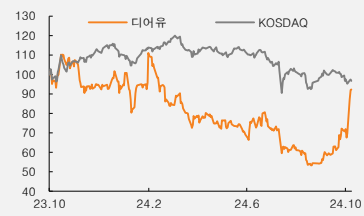


투자 의견(유지)	<b>매수</b>
목표주가(상향)	<b>▲ 42,000원</b>
현재주가(24/10/30)	31,550원
상승여력	33.1%

영업이익(24F,십억원)	28
Consensus 영업이익(24F,십억원)	29
EPS 성장률(24F,%)	1.6
MKT EPS 성장률(24F,%)	75.3
P/E(24F,x)	28.1
MKT P/E(24F,x)	10.6
KOSDAQ	738.19
시가총액(십억원)	749
발행주식수(백만주)	24
유동주식비율(%)	64.8
외국인 보유비중(%)	2.3
베타(12M) 일간수익률	1.22
52주 최저가(원)	18,220
52주 최고가(원)	38,000
(%)	1M 6M 12M
절대주가	57.9 18.8 -4.4
상대주가	63.4 39.9 -1.9



[엔터테인먼트]  
김규연  
gyuyeon.kim@miraeasset.com

# 디어유

## 큐큐 찾았다, 돌파구

### 갑자기 중국

QQ뮤직, Kuguo, Kuwo 세 개 어플에 디어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텐센트 뮤직의 2Q24 음악 스트리밍 어플 유료 사용자수는 1억 1,700만 명, 23년 기준 MAU는 5.6억명이다. **약 5억 명의 새로운 시장이 디어유에게 열린다.**

#### ① K-POP 향 구독자 증가

K-POP 아티스트 덕질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꺾이지 않았다. 3Q24 중국향 누적 수출 금액은 4,341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이미 23년 온기 수출금액인 3,4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디어유 앱은 중국 시장에서는 iOS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24년 1분기 기준 중국의 iOS 점유율은 16%다. 24년 10월 기준 추적 가능한 디어유 어플 MAU 중 중국 MAU 비중은 32%다. 이를 iOS 시장 점유율을 역산하면 32%/16%=200%.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중국 발 MAU는 무려 현재 총 MAU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 ② C-POP 향 구독자 발생

텐센트 뮤직과의 협업은 별도의 합작법인 등을 설립하지 않고 전략적 제휴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디어유와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본 시장보다는 서비스 개시 준비 기간이 단축돼 1Q25 말경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또한 일본 사례와 유사하게 10~50개의 IP로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 실적 및 밸류에이션

25년 지배주주순이익 387억원에 Target P/E 26x를 적용해 직전 37,000원에서 14% 상향한 42,000원을 목표주가로 제시한다. 실적 추정에 현재의 MAU 및 ASP 하락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되 밸류에이션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디어유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차별성은 JYP와 SM의 지분이다. 따라서 JYP와 SM P/E의 평균에 중국 시장 기대감에 대한 프리미엄 10%를 적용했다. 이는 5월 23일 인디밴드 중국 현지 공연 허가 보도 당시 3사에 적용된 프리미엄 평균이다.

결산기 (12월)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십억원)	40	49	76	77	102
영업이익 (십억원)	13	16	29	28	49
영업이익률 (%)	32.5	32.7	38.2	36.4	48.0
순이익 (십억원)	-25	16	26	27	39
EPS (원)	-1,349	732	1,104	1,121	1,630
ROE (%)	-41.6	12.4	16.9	14.6	18.0
P/E (배)	-	39.4	29.1	28.1	19.4
P/B (배)	14.6	4.8	4.5	3.8	3.2
배당수익률 (%)	0.0	0.0	0.0	0.0	0.0

주: K-IFRS 개별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디어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1. 갑자기 중국

### 텐센트 뮤직과 손잡고 중국 시장 진출

텐센트 뮤직은 10월 28일 디어유와 전략적 제휴 계약을 맺고 중국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QQ뮤직, Kuguo, Kuwo 세 개 어플에 디어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텐센트 뮤직의 2Q24 음악 스트리밍 어플 유료 사용자수는 1억 1,700만 명, 23년 기준 MAU는 5.6억명이다. 약 5억 명의 새로운 시장이 디어유에게 열린다.

당사에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

- 1) K-pop 향 구독자 증가
- 2) C-pop 향 구독자 발생

센서타워 기준 WeSing을 포함한 네 개 어플 MAU의 단순 합산은 1억 967만명인데, 센서타워는 안드로이드와 iOS만 집계되는 반면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HarmonyOS를 탑재하고, 중국 내 화웨이 점유율이 35%임을 감안하면 센서타워 내 중국 데이터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텐센트 뮤직 산하 음악 스트리밍 어플 세 개에 버블 서비스 탑재



자료: QQ뮤직,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텐센트 뮤직 산하 스트리밍 어플



자료: 언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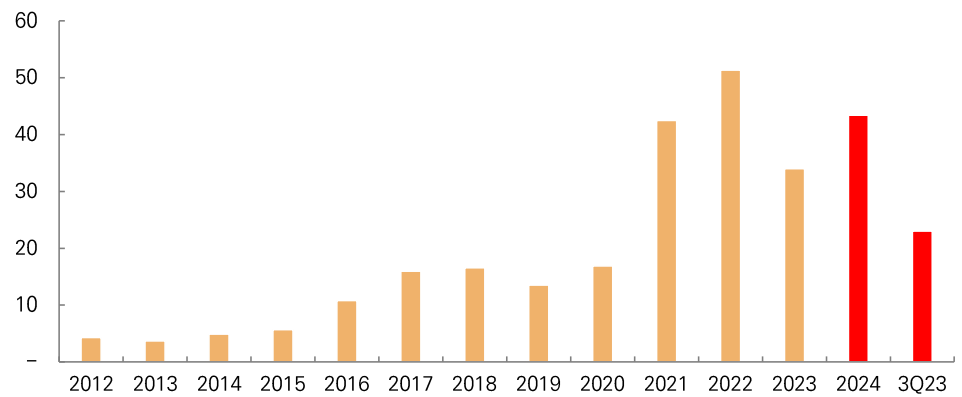
## 2. K-POP 향 구독자 증가

### K-POP 아티스트 덕질에 대한 중국의 꺾이지 않는 수요

22년 말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가 하락세를 촉발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 팬덤의 앨범 발매 운동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였다. 앨범 판매량은 2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은 예외다. 3Q24 중국향 누적 앨범 수출금액은 4,341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이미 23년 온기 수출금액인 3,4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아직 BTS가 완전체로 활동했던 22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이 정도면 중국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즉 중국 팬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숫자다. 그렇다면 앨범보다 충성도 낮은 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료 콘텐츠는?

그림 3. 중국 앨범 판매량은 이미 반등

(백만달러)



자료: TRAS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팬 충성도에 따른 상품 구매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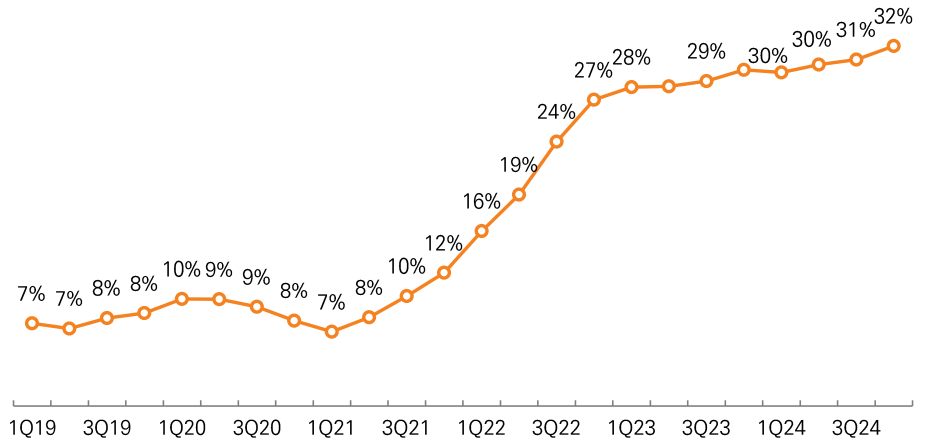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다만 센서타워 내 확인 가능한 디어유 어플은 for JYPnation, LYSN, with STARS 세 개 뿐. 분기 MAU는 세 개 월 합산 데이터.

디어유 MAU 데이터도 이를 증명한다. 24년 들어 디어유 MAU는 소폭 하락 중이다. 센서타워 데이터를 기준으로 1Q 4.77백만 → 2Q 4.67백만 → 3Q 4.66백만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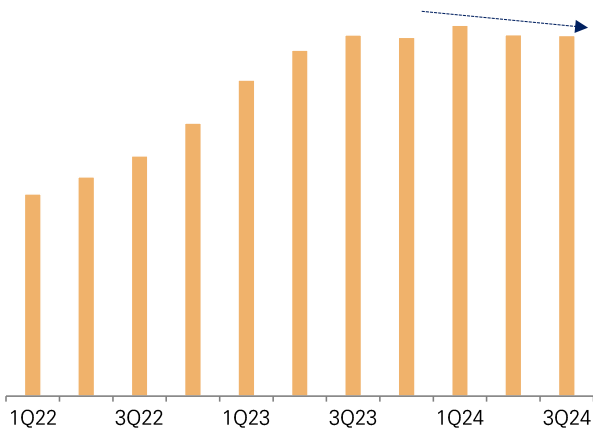
여기에서도 중국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Q 1.41백만 → 2Q 1.42백만 → 3Q 1.44백만으로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마 K-pop만한 게 없었나 보다.

그림 5. 디어유 MAU 중국 비중 추이 지속 증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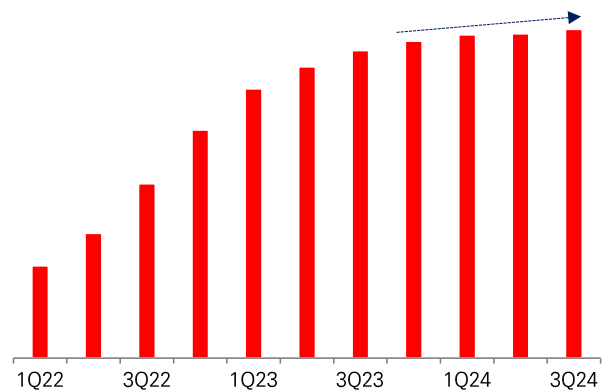
주: 센서타워 MAU 추적 가능한 LYSN, bubble for JYPnation, bubble with STARS 기준  
 자료: 센서타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전체 MAU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거나



주: 센서타워 MAU 추적 가능한 LYSN, bubble for JYPnation, bubble with STARS 기준  
 자료: 센서타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중국 MAU는 소폭 증가세



주: 센서타워 MAU 추적 가능한 LYSN, bubble for JYPnation, bubble with STARS 기준  
 자료: 센서타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Q.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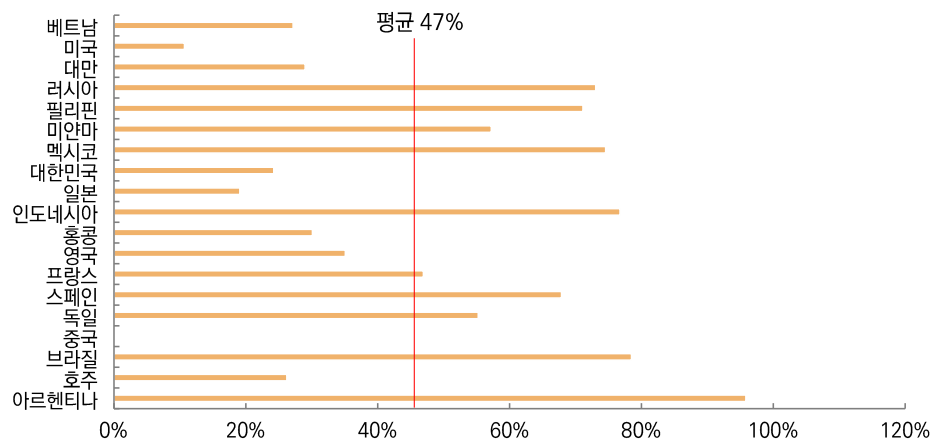
그런데 앨범 수출액 증가세에 비해 버블 증가세가 더디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버블이 중국에서 매우 비싼 콘텐츠기 때문이다.

버블 메시징의 구독권은 월 4,900원이다. 아무리 한국과 중국의 1인당 GDP가 약 세 배 차이가 난다지만 4,900원 그 자체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디어유 앱은 중국 시장에서는 iOS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16 128GB는 5,999위안, 원화로 113만원이다. 이는 중국 1인당 GDP의 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4년 1분기 기준 중국의 iOS 점유율은 16%다.

단순 계산을 위해 중국 K-pop 팬덤 내 iOS 사용률이 16%로 중국 전체 시장과 비슷하다고 가정하자. 24년 10월 기준 추적 가능한 디어유 어플 MAU 중 중국 MAU 비중은 32%다. 이를 iOS 시장 점유율을 역산하면  $32\%/16\%=200\%$ .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중국 발 MAU는 무려 현재 총 MAU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그림 8. 안드로이드 MAU 비중이 0%인 중국 (주요국 평균 47%)**



자료: 센서타워, 미래셋증권 리서치센터

### 3. C-POP 향 구독자 발생

#### 그림의 떡이 내 눈 앞에

동사에 추가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시장은 중국 유명인들을 디어유 생태계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데 있다. 버블 메시지는 중국에 아주 적합한 서비스다. 중국은 1) 아티스트를 위시한 인플루언서 시장이 발달해 있고, 2) 소셜 미디어를 통한 그들과의 소통이 아주 활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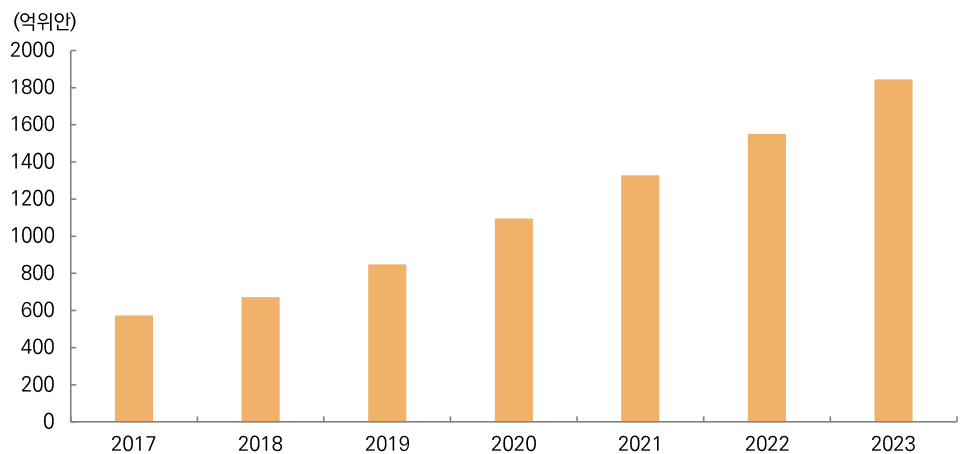
중국은 그동안 K-엔터테인먼트에게 그림의 떡과 같은 시장이이었다. 중국 음악 시장은 뒤늦게 성장했지만 22년 기준 글로벌 6위에 달하는 시장이다. 디지털 음악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1,849억위안, 35.8조원에 달한다. 그만큼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대한 중국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표 1. 음악 산업 규모 순위

순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위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2위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3위	독일	영국	영국	영국	영국	영국
4위	영국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5위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중국
6위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중국	프랑스
7위	캐나다	중국	중국	중국	한국	한국
8위	호주	호주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9위	브라질	캐나다	호주	호주	호주	브라질
10위	중국	브라질	브라질	네덜란드	이탈리아	호주

자료: IFPI(2023),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중국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



자료: 텐센트 엔터테인먼트 백서 2024,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Q. 얼마나 생길까?**

추정하기 정말 어려운 영역이다. 새로운 시장이니만큼 몇 명의 아티스트가 들어올 지, 그들의 팬덤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금액의 범위가 매우 벌어진다.

따라서 디어유가 앞서 진출한 Bubble for Japan의 사례를 들어 추정하고자 한다. 23년 1Q 일본 엠업홀딩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 23년 3Q Dear U plus가 출범했다. 그 뒤 24년 2Q 말인 6월 서비스가 시작됐다.

텐센트 뮤직과의 협업은 별도의 합작법인 등을 설립하지 않고 전략적 제휴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디어유와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본 시장보다는 서비스 개시 준비 기간이 단축돼 1Q25 말경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서비스는 6월 첫 개시 당시 10개의 IP로 시작해 9월 기준 SKE48 멤버 40명이 추가됐다. 앱 다운로드 수는 27,501인데 이는 당사가 IR자료에 게시한 구독수 25,000에 준한다. 3Q 다운로드 수는 25% 증가했으나 매출은 543% 증가했다. 2Q 영업일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운로드 수와 IP 증가를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또한 이와 유사하게 10~50개의 IP로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QQ 뮤직 내 유사한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보유 IP는 17개이다. 일본처럼 초기에 1개의 IP가 평균 구독권 2,500을 확보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한다. 버블 구독권 4,500원을 적용하면 첫 분기에 약 1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매우 보수적 가정으로 소셜 미디어에 굉장히 친숙한 중국 시장의 특성과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보다 빠른 속도와 큰 규모로 동사의 실적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표 2. Dear U plus 사업 현황**

	2Q24	3Q24F
IP 수	10	50
센서타워 매출(천원)	10,020	64,386
센서타워 다운로드 수	27,501	34,512
<b>Dear U plus</b>		
매출(천원)	102,850	514,250
당기순손익(천원)	-331,988	-7,556
지분법 손익(천원)	-146,075	-3,325

자료: 센서타워, 디어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 4. 실적 및 밸류에이션

표 3. 디어유 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1Q23	2Q23	3Q23	4Q23	1Q24	2Q24	3Q24F	4Q24F	2023	2024F	2025F
영업수익	16.4	19.1	19.4	20.9	20.3	19.1	18.9	19.2	75.7	77.4	102.2
QoQ/YoY	20%	17%	1%	8%	-3%	-6%	-1%	2%	54%	2%	32%
영업이익	5.7	6.7	7.3	8.8	7.2	7.1	6.2	7.7	28.6	28.1	48.7
QoQ/YoY	34%	18%	8%	21%	-19%	-1%	-12%	25%	76%	-2%	73%
영업이익률	35%	35%	38%	42%	35%	37%	33%	40%	38%	36%	48%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4. 실적 변경표

(십억원)

	2024F		2025F		변경 사유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영업수익	90.2	77.4	115	102	MAU 및 ASP 하락 추이 적용
영업이익	40.9	28.1	63	49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가입자 및 ASP 하락 트렌드를 반영해 24년과 25년 매출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 중국 진출로 매출과 이익단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은 분명하나 가정에 따라 그 크기가 천차 만별이다. 또한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본 시장 진출에 따른 실적을 추정했을 때 그 괴리가 얼마나 큰 지 경험했다.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으로 인한 중국 시장 진출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사업 진행의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거대한 중국 시장의 크기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실적 추정은 실제 치와 음으로든 양으로든 괴리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실적 추정에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되 밸류에이션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디어유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차별성은 JYP와 SM의 지분이다. 그로 인해 양 사의 IP와의 연결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어유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때 JYP와 SM P/E의 평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중국 시장 기대감에 대한 프리미엄을 적용했다. 프리미엄 10%는 24년 5월 23일 인디밴드가 중국 현지 공연을 허가 받았다고 했을 당시 국내 연예 기획사 3사에 적용된 프리미엄의 평균이다.

표 5. 디어유 목표 주가 산출

항목	값	
25F 지배주주순이익(십억원)	38.7	JYP와 SM의 P/E 평균에 중국 프리미엄 10% 적용
Target P/E	26x	*10%는 5월 23일 인디밴드의 중국 공연 소식이 알려지자 당일 시장이 JYP, SM, 하이브에 적용한 프리미엄을 평균
목표 시가총액(십억원)	1,006.8	
주식수(천주)	23,738	
목표주가(원)	42,000	
현재주가(원)	31,500	
상승여력	33%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디어유 (376300)

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십억원)	2022	2023	2024F	2025F
<b>매출액</b>	<b>49</b>	<b>76</b>	<b>77</b>	<b>102</b>
매출원가	0	0	0	0
<b>매출총이익</b>	<b>49</b>	<b>76</b>	<b>77</b>	<b>102</b>
판매비와관리비	33	47	49	54
<b>조정영업이익</b>	<b>16</b>	<b>29</b>	<b>28</b>	<b>49</b>
<b>영업이익</b>	<b>16</b>	<b>29</b>	<b>28</b>	<b>49</b>
<b>비영업손익</b>	<b>1</b>	<b>4</b>	<b>5</b>	<b>3</b>
금융손익	2	5	5	5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0	0	0	-2
세전계속사업손익	17	33	33	52
계속사업법인세비용	1	6	7	13
계속사업이익	16	26	27	39
중단사업이익	0	0	0	0
<b>당기순이익</b>	<b>16</b>	<b>26</b>	<b>27</b>	<b>39</b>
지배주주	16	26	27	39
비지배주주	0	0	0	0
<b>총포괄이익</b>	<b>17</b>	<b>26</b>	<b>27</b>	<b>39</b>
지배주주	17	26	27	39
비지배주주	0	0	0	0
EBITDA	17	31	30	50
FCF	21	9	32	35
EBITDA 마진율 (%)	34.7	40.8	39.0	49.0
영업이익률 (%)	32.7	38.2	36.4	48.0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	32.7	34.2	35.1	38.2

예상 재무상태표 (요약)

(십억원)	2022	2023	2024F	2025F
<b>유동자산</b>	<b>135</b>	<b>147</b>	<b>176</b>	<b>217</b>
현금 및 현금성자산	84	57	87	13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	12	10	13
재고자산	0	0	0	0
기타유동자산	45	78	79	73
<b>비유동자산</b>	<b>18</b>	<b>43</b>	<b>44</b>	<b>43</b>
관계기업투자등	0	0	0	0
유형자산	0	3	5	4
무형자산	7	10	10	10
<b>자산총계</b>	<b>153</b>	<b>191</b>	<b>220</b>	<b>260</b>
<b>유동부채</b>	<b>11</b>	<b>17</b>	<b>20</b>	<b>21</b>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	10	10	13
단기금융부채	0	1	1	1
기타유동부채	3	6	9	7
<b>비유동부채</b>	<b>0</b>	<b>4</b>	<b>4</b>	<b>4</b>
장기금융부채	0	4	4	4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b>부채총계</b>	<b>11</b>	<b>21</b>	<b>24</b>	<b>25</b>
<b>지배주주지분</b>	<b>141</b>	<b>170</b>	<b>196</b>	<b>235</b>
자본금	12	12	12	12
자본잉여금	159	162	162	162
이익잉여금	-41	-15	12	51
<b>비지배주주지분</b>	<b>0</b>	<b>0</b>	<b>0</b>	<b>0</b>
<b>자본총계</b>	<b>141</b>	<b>170</b>	<b>196</b>	<b>235</b>

예상 현금흐름표 (요약)

(십억원)	2022	2023	2024F	2025F
<b>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21</b>	<b>13</b>	<b>34</b>	<b>35</b>
당기순이익	16	26	27	39
비현금수익비용가감	2	6	4	10
유형자산감가상각비	0	1	1	1
무형자산상각비	0	1	1	1
기타	2	4	2	8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및부채의변동	2	-23	6	-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1	-7	2	-2
재고자산 감소(증가)	0	0	0	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3	2	0	0
법인세납부	-1	0	-7	-13
<b>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29</b>	<b>-41</b>	<b>-5</b>	<b>9</b>
유형자산처분(취득)	0	-3	-2	0
무형자산감소(증가)	0	-4	-1	-1
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31	-28	-2	10
기타투자활동	-2	-6	0	0
<b>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8</b>	<b>3</b>	<b>0</b>	<b>0</b>
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0	4	0	0
자본의 증가(감소)	9	3	0	0
배당금의 지급	0	0	0	0
기타재무활동	-1	-4	0	0
<b>현금의 증가</b>	<b>57</b>	<b>-27</b>	<b>30</b>	<b>45</b>
기초현금	27	84	57	87
기말현금	84	57	87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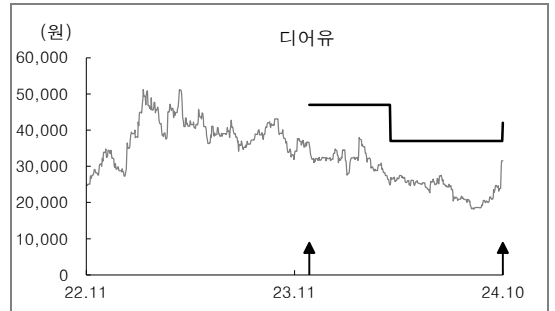
자료: 디어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주당가치 및 valuation (요약)

	2022	2023	2024F	2025F
P/E (x)	39.4	29.1	28.1	19.4
P/CF (x)	34.5	23.5	24.8	15.4
P/B (x)	4.8	4.5	3.8	3.2
EV/EBITDA (x)	32.9	21.0	19.7	11.1
EPS (원)	732	1,104	1,121	1,630
CFPS (원)	834	1,365	1,272	2,043
BPS (원)	5,988	7,141	8,262	9,893
DPS (원)	0	0	0	0
배당성향 (%)	0.0	0.0	0.0	0.0
배당수익률 (%)	0.0	0.0	0.0	0.0
매출액증가율 (%)	23.0	53.9	2.3	32.0
EBITDA증가율 (%)	23.4	81.4	-1.0	67.2
조정영업이익증가율 (%)	23.0	75.8	-1.7	73.0
EPS증가율 (%)	흑전	50.9	1.6	45.4
매출채권 회전율 (회)	14.2	14.3	12.5	16.3
재고자산 회전율 (회)	0.0	0.0	0.0	0.0
매입채무 회전율 (회)	0.0	0.0	0.0	0.0
ROA (%)	11.5	15.3	13.0	16.1
ROE (%)	12.4	16.9	14.6	18.0
ROIC (%)	286.4	103.0	61.8	100.4
부채비율 (%)	8.0	12.4	12.4	10.8
유동비율 (%)	1,220.9	874.2	879.2	1,031.0
순차입금/자기자본 (%)	-89.2	-71.8	-78.0	-79.7
조정영업이익/금융비용 (x)	1,401.5	447.3	224.6	359.8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 추이

제시일자	투자 의견	목표주가(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디어유 (376300)				
2024.10.31	매수	42,000	-	-
2024.04.17	매수	37,000	-35.89	-14.73
2023.11.27	매수	47,000	-32.75	-19.15



\* 과리율 산정: 수정주가 적용,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년이며 목표주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함

투자 의견 분류 및 적용 기준

기업	산업
매수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
Trading Buy: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10% 이내의 등락이 예상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약화
매도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추가하락이 예상	

매수(▲), Trading Buy(■), 중립(●), 매도(◆),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투자 의견 비율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매도
82.38%	10.23%	7.39%	0%

\* 2024년 09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